

# 설악권 종합개발계획 수립 건의안

의 안 번 호	291
------------	-----

발의년월일 : 1994. 10.

발 의 자 : 한영환의원외 3인

## □ 주 문

### 1. 설악권 여건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유한 설악산은 속초·인제·고성·양양 4개 시·군권역으로 분포되어 각 시·군 공히 관광에 대한 개발이 시급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연계 종합개발계획이 없어 자치단체 나름대로의 관광개발에 연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 가. 중앙단위 관광개발

설악산은 인접한 바다·호수 그리고 온천 등으로 조화를 이룬 국내 제1의 4계절 전천후 관광지로써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1970. 3. 국립공원으로 지정(건설부공고 제28호) 하여 지난해 우리나라지역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 수는 전년도 대비 31% 증가한 연 700여만명(속초시 '93통계자료)으로 해마다 점증하는 추세에 있고

최근에는 속초시 전역을 포함한 설악권 148.584km<sup>2</sup>를 관광특구로 지정·고시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배제시킴으로써, 관광지내 자유로운 관광활동을 통한 외국인 관광객의 적극적인 유치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남북교류를 대비하여 설악산·금강산 연계한 관광지 개발 사업이 공약사업으로 정부차원에서 구상하고 있고

21세기 환동해권 시대 거점 도시로 설악권을 중심으로한 광역접근망 확충을 위한

- 1) 동서고속전철 및 북부고속도로 건설
- 2) 동해 북부선의 조기 복구
- 3) 국제항로 개설
- 4) 그리고 국제공항 신설등의 기간산업 유치와

그밖의 각 분야에서 민간투자를 확대하도록 하여 국제 관광지로 육성·추진하고 있다.

## 나. 지역단위 관광개발

설악산 진입로의 극심한 차량 정체현상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제3섹타 사업의 일환으로 모노레일 사업을 계획·추진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에게 해양에 대한 탐구의 꿈을 심어주고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해양박물관 건립으로 해안 관광도시화를 추진하고 있고,

관광객이 편하게 쉬어갈 수 있는 대단위 위락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청초호와 영랑호 관광 유원지 개발 계획등 각종지역 개발사업들이 계획·추진되고 있다.

## 2. 관광지의 현실태는

국립공원 설악산을 중심으로 인근 바다, 호수 그리고 계곡 등을 찾는 관광·피서객들로 인하여 점차 환경오염만 가중시킬 뿐 지역의 관광수입은 저조하며,

연휴와 주요 관광철에는 탐방객의 차량 흥수로 설악산 진입2차선은 물론이거니와 시내 전구간이 소통되지 않아 모든 도로가 주차장화 되어 도로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우리지역의 주차공간은 30개소 119,804m<sup>2</sup> 3,751대의 주차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1일 쳐고 운행차량은 36,711대 (유입차량 24,211대 · 등록차량 12,500대)로 주차장이 절대 부족하며,

특히, 속초시 행정구역 104.9km<sup>2</sup>중 53.2%라는 과다지역이 국립공원이고, 접적지역에 위치한 수복도시인 관계로 위락·편익시설 등 관광 기반시설이 미비하여 스쳐버리는 관광지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 3. 건의사항으로는

정부는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제주도를 포함한 강원도의 설악권이 국민여가 지대로 설정되어 있으나, 제주도는 종합개발계획 수립과 개발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모든 장애요인이 해소됨으로써 활발한 관광개발이 진척되고 있으나, 반면 설악권은 종합개발계획조차 수립되지 않고 있다.

이제 세계화·개방화 시대의 무한경쟁에 적극 대처해 나가기 위해 관광분야에 있어서도 하루속히 대외경쟁력을 갖춘 국제적 관광지 조성은 필연적이므로

21세기 환동해권 시대를 대비하여 강원도가 주관하는 설악권 4개 시군을 통합한 도시계획과 관광종합개발계획 등을 조속히 수립하여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역 개발을 통한 관광진흥을 위해 설악권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건의한다.

## □ 제안이유

천혜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설악산은 지난해 700여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등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으며, 또한 지난 9월 1일 속초시 전역을 포함한 설악권 148.584㎢가 관광특구로 지정 고시되어

관광특구 지정을 계기로 지역관광 발전을 가속화시켜 나가기 위해 지역개발 사업인 모노레일 사업, 해양박물관 건립, 청초호 유원지 개발 그리고 설악권을 중심으로 한 광역접근망 등 현안사업 들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설악권에 대한 종합개발계획과 개발에 대한 장애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역관광진흥을 통해 국제적인 관광지를 조성해 나가고자 강원도, 강원도의회 그리고 속초시에 설악권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건의하는 것임.